



남원소방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추진

남원소방서는 지난 11일, 공설시장 등 관내 전통신장 3곳을 대상으로 대형 화재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 유도를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공무원과 이용소방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 점포주 등 관계자가 주도하여 소방·전기·가스 등 화재 취약 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 △열 적외선 카메라 활용 전기시설 점검 및 불량·개선사항 즉시 보완 △화재예방 자율점검표 배부 및 노후 멀티탭 수거·교체 △119화재대피인심률 및 소방차길 터주기 홍보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의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등 반복 임무를 진단하고 활동 실적 컨설팅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홀로 어르신 발굴 돌봄 서비스 연계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은주)는 1일1가구 소통행정 추진 과정에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을 발굴해 신속한 의료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며 고독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어르신은 평소 죽향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던 대상자로, 최근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기력 저하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었다.

특히, 관할 통장의 요청으로 대상자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틀간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119를 통해 남원의료원 응급실로 어르신을 이송했으며, 대상자는 치매 등록 대상자로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지원받아 입원 기간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팀과 소울케어노인복지센터의 협조로 따뜻한 상담을 제공하고 요양병원 입원 절차 지원 등 지속적인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노소사기 피해 예방활동 전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 장수파출소는 12일, 소규모 업체들의 노소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상가 및 업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경찰관, 소방관, 군청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공공서장비나 설계 등을 마치 계약된 것처럼 현혹하여 선입금을 요구하는 노소 사기 피해사례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포스터 부착 및 사례 중심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위기가구 발굴·지원 민관 협력 강화 '맞손'

남원시 - 남원우체국,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협약 체결

남원시가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남원우체국(국장 오정수)과 현장 밀착형 행정에 나서며, 3월 12일 시장실에서 남원우체국과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의 위기 상황을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지역 내 고립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하며, 남원우체국은 집배원을 통한 방문 안부 확인과 현장 위기징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5월부터 집배원들은 2주 단위로 대상 가구를 방문해 건강, 주거, 위생 등 생활전반을 점검한다.

시는 집배원이 작성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위기 징후 발견 시 즉시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사제 관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운봉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뇌경색으로 방 안에 쓰러져 있던 70대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는 사업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오정수 남원우체국장은 "우체국의 물류 네트워크를



공익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집배원들이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 위기 상황에 부딪힌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집배원들의 발견이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희망이 되고 있다"며, "3년 연속 사업 추진을 통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는 우편 발송 비용과 생필품 구매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비 1천1백만 원을 지원받는 등 3년 연속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전북 지역 내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퇴원환자 돌봄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협약

지역 내 의료기관 협력 통해 통합돌봄 기반 강화

임실군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병원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3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협약에는 임실군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전주고려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의료법인 디딤의료재단 우리요양병원, 임실중앙요양병원 등 총 6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의료기관이 퇴원을 앞둔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가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은 퇴원 예정 환자에 대한 사전 평가와 대상자 발굴, 의료정보 공유 및 사례 협력 등을 담당하며, 임실군은 통합돌봄 상담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내장상동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가구에 밑반찬 전달

정읍시 내장상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송래정)는 지난 11일, 관내 홀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봉사에는 부녀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을 정성껏 준비했다. 회원들은 준비한 반찬을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는 홀로 어르신 3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생활 실태와 건강 상태를 살폈다.

한편, 내장상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 내 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경찰서, 학교폭력 근절 합동 캠페인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는 12일 임실동중학교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근절 및 비행 행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신학기를 맞아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임실군청 여성청소년과, 임실교육지원청, 임실드림스타트, 임실청소년문화의집 등 관계기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 물품과 전단지 배부 및 하이라이프, 따뜻한 말 전달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각 관계기관이 학폭 예방에 선제적 대응 및 피해 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찰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폭의 근본 예방을 위해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첫 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장수경찰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지난 12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상대 교통법규 준수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근 어르신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적발 및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최근 발생한 이륜차 음주운전 사례를 설명하고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는 반면 이륜차 운전자 법규위반 행위에 엄격한 법적 조치를 따른다는 것도 아울러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335	필북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3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